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 8조원 돌파

- 금감원에 의하면 '09년 상반기 퇴직연금 영업실적은 누적 계약건수가 64,148건, 적립금액이 8조 2,597억 원, 가입 근로자 수는 1,381,209명을 기록함.
 - '09년 6월말 퇴직연금 등록 사업자 수는 최근 하이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이 신규진입하면서 총 52개사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하여 영업 중임.
 - 퇴직연금 누적규모는 전년말(6조 6,122억 원) 대비 24.9% 증가하였으며, '09년 상반기 중 월평균 증가율은 3.8%를 기록함.
 - 퇴직연금 계약건수와 가입 근로자 수의 월평균증가율도 각각 3.1%, 3.6%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.
-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(DB형)이 66.0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확정기여형(DC형)이 25.7%, 개인퇴직계좌(IRA)가 8.3%의 순으로 나타남.
 -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51.0%, 보험 36.5%, 증권 12.5%의 비중을 차지해 은행권역의 시장점유율이 최초로 50%를 상회한 것이 주요 특징임.
-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·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83.8%가 운용되고 있어 안전성향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.
 - 금융권역별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은 보험권이 94.5%, 은행이 84.6%, 증권이 49.7%를 기록함.
 - 보험사 및 은행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, 증권사의 운용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.
- 금감원은 2010년 말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종료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 및 사업자간의 경쟁은 가속될 것임.
 - 특히, 은행권은 광범위한 지정망 및 조직개편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(2009년 상반기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향후 전망,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연금팀, 9/8)